

# 보도자료

보도일시 | 2026년 3월 17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남구거리음악회 '장생포 살랑이는 봄날' 성황리 개최 장생포 문화창고 주말 300여 명 관람객 몰려 봄 시즌 시작 알려



▲ 남구거리음악회 공연 사진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지난 주말 장생포문화창고에서 열린 2026 남구거리음악회 '장생포 살랑이는 봄날'을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 등 3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며 장생포 문화공연의 봄 시즌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장생포에 찾아온 따뜻한 봄의 분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봄 시즌 오픈 공연으로, 남구거리음악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어올리는 마술 공연을 시작으로 역동적인

브라스밴드 공연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특별공연으로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공연되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 했다.

이날 장생포문화창고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시민, 관광객들로 붐비며 공연 내내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고, 관람객들은 봄의 정취 속에서 음악과 공연을 즐기며 장생포만의 특별한 분위기와 함께 주말 야간 문화여가를 만끽했다.

또한 공연이 마친 후에는 장생포라이트 상영과 함께 뮤지컬 출연배우들과의 포토타임도 진행 되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재)고래문화재단은 이번 봄 시즌 공연을 시작으로 여름, 가을, 겨울 시즌 특색에 맞는 공연을 기획하여 장생포 일대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거리공연과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장생포문화창고를 사계절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관광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서동욱 이사장은 "2026 남구거리음회 '장생포 사랑이는 봄날'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장생포의 봄을 열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될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과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16.**

---